

부활절 세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E 3<sup>RD</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3년 4월 2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통일 34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7 번 시편 (Psalm) 29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권영수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 (Exodus) 21:1-11</b>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품에 안기려”	찬양대
설 교 Sermon	<b>“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Pierce His Ear)</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51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찢는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삶과 분리된 막연한 신앙생활만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릇된 삶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34:1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개역개정 **출21:6**)

“Then his master must take him before the judges. He shall take him to the door or the doorpost and pierce his ear with an awl. Then he will be his servant for life.” (NIV **Exodus 2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23 (주일)	4/24 (월)	4/25 (화)	4/26 (수)	4/27 (목)	4/28 (금)	4/29 (토)
	레27	민1	민2	민3	민4	민5	민6
본문	시34 전10 딤후2	시35 전11 딤후3	시36 전12 문1	시37 아1 히1	시38 아2 히2	시39 아3 히3	시40,41 아4 히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4/26수 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2) – “하나님 나라” (막1:15)
토요 새벽기도회(4/29토 오전6:30)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119:16)

지난 주일(4/16)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34)

“하나님이 임하심은” (출애굽기 20:18-26)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 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데오(Coram-Deo)”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전해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20:19)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명령만하시거나,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시험하시고, (또한) 연단하시는 것임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고, 2)둘째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덕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